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매개효과: 진로결정몰입 중심으로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at Vocational Training School : focusing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이 수 경¹⁾, 김 연 성^{2)*}
(Lee SooKyoung and Kim YounSung)

요 약 본 연구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함으로써 진로 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A직업전문학교 258명이었으며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진로결정 몰입(진로탐색몰입, 진로대안배제경향)은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결정성(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였고 이 중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결정성과 진로결정몰입을 높일 수 있는 학습 환경의 조성 과 그에 상응하는 진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 직업전문학교, 자기결정성, 진로결정몰입, 진로준비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implication for the preparation of the specific and practical strategy through an analysis of whether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ocational exploration commitment and tendency to foreclose) acts 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determinatio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was collected from 258 students at a vocational training school in Seoul, and was analyz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commitment to career choice has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orresponding Author : keziah@inha.ac.kr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하였음.

Manuscript received January 17, 2019 / revised February 8, 2019 / accepted February 13, 2019

1) 중부대학교 항공서비스학전공, 제1저자

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신저자

Secondly, self-determination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among them, the effect of relatedness is predominan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insights about how a vocational training school can motivate students to participate in self-de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for improved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related career preparation programs.

Key Words : Vocational Training School, Self-Determinati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서 론

직업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76곳에서 운영 중이다[1]. 직업전문학교는 수능 등 입학전형을 거치지 않고 면접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자라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한 점 등 제도적 이점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전제되기보다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입학 한 경우가 많아 전공과 적성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공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 또한 지속적으로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휴학이나 자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구하기 힘든 형편이며 중도 탈락의 동기나 학습지속을 유인하는 변인 등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지 않다[3]. 대학 진학 전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학업과 대학, 그리고 취업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4]. 학교교육에서 상담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학교, 학생, 학부모의 공통 관심사가 인간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보다 좋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과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입시위주의 진학지도

상담이 학교 상담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5]. 이러한 현실에서 직업전문학교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학 후 학생 각자의 특성 및 다양한 요구조건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차별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 필요한데[6], 결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행위인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회입문을 앞두고 있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7]. 그리고 결정한 진로에 대해 애착을 갖고 특정한 직업을 갖고자 꾸준히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진로결정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이며[8-10], Marcia[11]는 진로를 결정하였으나 진로에 매진하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심리가 뒤따르는 것은 진로결정몰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구체적인 전공을 선택하였음에도 진로활동에 매진하지 못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선행연구에 따라서 진로결정몰입을 통해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결정몰입 과정에서 환경과 자신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내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진로결정몰입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받거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로준비행동이 긍정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개인의 내적 동기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Deci and Ryan[13]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욕구 즉,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 될수록 과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발현된다는 것이다[14]. 따라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는 진로결정몰입과 진로준비행동을 모두 증대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진로결정몰입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애착을 갖고 특정한 직업을 갖고자 꾸준히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며 진로탐색몰입은 진로결정몰입의 하위요인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탐색, 직업정보에 대한 탐색으로 잠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Blustein[12]은 이러한 진로탐색몰입과 자기결정성과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자기결정성이 높은 수준의 집단이 진로준비행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15]. 따라서 내적 동기의 발현인 자기결정성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며 진로결정몰입은 자기결정성의 영향을 받아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진로에 대한 확신과 애착을 갖게 하는 진로결정몰입이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자기결정성의 하위변인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그리고 진로결정몰입의 하위변인은 진로탐색몰입, 진로대안배경향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은 Deci and Ryan[13]에 의해 제안된 동기이론으로 동기(Motivation)의 유형이 외재적 혹은 내재적으로 분명히 구분된다는 기존의 개념과 달리 이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즉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로 이동 할수록 자기결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며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은 자율성으로써 행동에 대한 의도된 조절(Intentional Regulation)이 스스로 결정한 의도인지, 외부에 의해 강요된 의도인지에 따른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무동기(Non-Regulation), 외적조절(Extrinsic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그리고 내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14]. 외적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자 스스로가 행동을 결정했다고 지각할 때 자율성이 많다고 느낌으로서 행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13].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알맞은 사회 환경적 조건에 처해 있을 때나 자기결정성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될 때 내적 동기가 증진된다. 내적 동기가 발현되는 것은 창의성, 자존감, 개인의 안녕감이 향상된다는 Deci and Ryan[16], Grolnick and Ryan[17]의 연구결과와 같이 어떠한 일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충족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어 진로준비행동을 증대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자율성(Autonomy)은 사람들이 행동의 근원이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조절자라고 믿으며, 자기에게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는 것이다[14]. 선행연구에서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

면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며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고 학업 집중도, 만족도 상승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18].

유능감(Competence)은 한 개인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충족된다고 본다[14]. 개인의 능력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내적 욕구를 의미하며,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경험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으로 유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증대된다[14].

관계성(Relatedness)은 소속의 욕구처럼 대인관계적 유대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는 경향성이며[19], 타인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기를 원하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로 이해할 수 있다.

2.2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 결정에 강한 애착을 보이며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20-21]. 진로결정몰입의 개념은 개인이 진로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몰입을 위해 충분한 진로탐색이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설명될 수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진로탐색몰입, 진로대안배제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로탐색몰입(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에서 몰입은 반드시 탐색(Exploration)이라는 발달과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탐색 없이 진로를 결정하고 몰입하는 부정적인 진로결정몰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탐색은 자신의 특성이나 직업정보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22].

진로대안배제경향(Tendency to Foreclose)은 진로결정몰입의 또 다른 하위요소로 이때 배제(Foreclose)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제외한 다른 진로대안들을 미리 막는다는 개념으로 자신이 결정한 직업이나 진로목표에만 강력하게 애착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말한다[23]. 진로대안배제경향이 강한 경우는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모호함이나 불안감 등 부정적 심리 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진로에 몰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란 매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며 개인의 진로목표달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적 노력이다[24].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이며 둘째는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 즉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활동을 말하고 마지막은 두 번째 활동에서 얻은 진로에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는 활동을 의미한다[24]. 진로준비행동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도 설명되며 첫째는 자기발견과 진로탐색을 위한 행동으로 적성을 진단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거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과 의논하여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둘째는 취업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일 등의 직접적인 취업준비활동을 의미한다[6]. 진로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26], 진로준비행동 또한 발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교육과 환경 제공 및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24]. 따라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행

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분석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예측변인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준거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 매개변인은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세이므로 진로준비행동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Lee and Lee[1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태도와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서 자기결정성의 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정도에 따라 군집 간에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Lee[27]는

자기결정성과 진로의식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하위요소인 유능감은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나 과제수행에서 성공할 것 이라는 기대감을 의미하므로[28],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의 유능감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영향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Lee[29]와 Jang et al.[30]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자기결정성 하위요소인 유능감과 유사한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15, 27-30].

Guay et al.[31]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활동을 할 때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에 더 적극적이라고 하였으며, 자율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인내, 몰입, 도전 등의 심리적 기능이 높은 반면, 자율성 수준이 낮은 개인은 우울, 낙오, 진로미결정 등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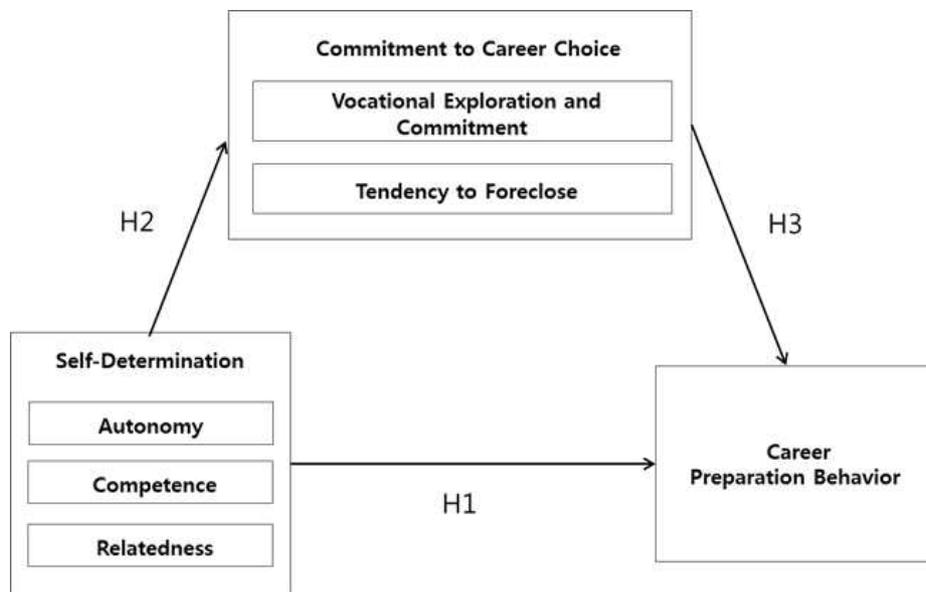


Fig. 1 The Proposed Research Model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몰입은 자율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해 보다 많은 확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9, 32].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자율성을 지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진로결정몰입의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와[35],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연구가 있으며[34],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회적 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몰입,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이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33]. 이런 선행연구를 통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진로결정몰입에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바람직한 진로결정과 더불어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몰입이 필수적이다 할 것이다. 진로결정 몰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실제로 선택할 때에도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하게 되며 직업생활도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였다[35]. 이와 반대로 진로결정몰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확신이 없기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겪게 되므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은 진로결정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진로결정 몰입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연구에서 진로결정몰입은 진로탐색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36], 몰입경험이 진로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며 진로와 관련된 최적의 경험과 심리적인 만족감은 직업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Kim[37]은 진로결정몰입이 진로결정과 진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진로준비와 관련한 실제적인 행동차원의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드러났다[38]. 이는 전공과목에서 충분히 몰입을 경험한다면 이후 전공 관련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Lee[3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결정

몰입이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결정에 애착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할 때 진로결정몰입은 개인의 사회진출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이미 직업과 연관된 구체적인 전공을 선택한 경우임에도 진로에 몰입하지 못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보이고 진로목표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진로결정 몰입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심리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은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한 후에 경험하는 불안감이나 의심, 공포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극복하는데 중요하므로[48], 진로결정몰입은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증진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에서 진로결정몰입이 진로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불안감과 모호함을 줄여 진로에 확신을 갖고 몰입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며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자기결정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1-1: 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1-2: 유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1-3: 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 자기결정성은 진로결정몰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1: 자율성은 진로탐색몰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2: 자율성은 진로대안배제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3: 유능감은 진로탐색몰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4: 유능감은 진로대안배제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5: 관계성은 진로탐색몰입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6: 관계성은 진로대안배제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3: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 H3-1: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탐색몰입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 H3-2: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대안배제가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 H3-3: 유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탐색몰입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 H3-4: 유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대안배제가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 H3-5: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탐색몰입이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 H3-6: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대안배제가 매개작용을 할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A직업전문학교 1학년 학생들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에 앞서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 응답자에게 설문 진행 방식, 소요시간,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응답자료 중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와 불성실 응답 및 설문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거한 258명을 최종표본으로 확정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86명(72.1%), 여학생이 72명(27.9%)로 남학생 비율이 높다. 이는 연구대상인 A직업전문학교가 항공정비 특성화 학교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보다 큰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의 연령분포는 17세 1명(0.39%), 18세 50명(19.38%), 19세 207명(80.23%)이 참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258)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86	72.1
	Female	72	27.9
Age	17	1	0.39
	18	50	19.38
	19	207	80.23
Major	Aircraft Maintenance	133	51.55
	(NDI)Non Destructive Inspection	60	23.26
	Airline Service	52	20.20
	Tourism & Hospitality Management	13	5.04

Table 2 Reliability Test Results of the Measured Variable

Measured Variable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α
Self-Determination	Autonomy	6	.82
	Competence	3	.93
	Relatedness	6	.95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ocational Exploration & Commitment	19	.89
	Tendency to Foreclose	9	.8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7	.92

4.2 연구도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이며 자기결정성은 Deci and Ryan[14]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PNS: Basic Psychology Needs Scale)를 바탕으로 Kim[40]이 수정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SPSS Statistics 18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측정된 설문 문항들의 기술통계분석과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율성은 총 6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편이다.', '나는 보통 내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등이 있다. 유능감은 총 3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수강 과목들의 가장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수강 과목들의 과제를 매우 잘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이 있다.' 등이 있으며 관계성은 총 6문항으로 문항의 예는 '나는 학교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과 대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 와서 만난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낸다.' 등이 있다. 진로결정몰입은 Choi[41]가 Blustein et al[42]의 CCCS(Commitment to Career Choice Scale)를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변인인인 진로탐색몰입(Vocational Exploration & Commitment)은 개인이 진로결정몰입(Commitment to Career

Choice)을 위해 자신의 특성과 환경 및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19문항으로 문항의 예로는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등이 있다. 진로대안배제경향(Tendency to Foreclose)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강력하게 애착하여 하나의 진로 목표만을 고려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문항의 예로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나한테 딱 맞는 하나의 직업이 존재할 것 같다.', '우유부단한 태도는 나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Kim[24]의 진로준비행동의 척도를 수정·보완한 Ko[41]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7개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일련의 행동인 탐색행동과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준비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또는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

하였다.’등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상관이 높은 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공차한계, 분산팽창계수(VIF)로 다중공선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진로탐색몰입, 진로대안배제경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Judd and Kenny[44]가 제시한 3단계 매개분석 방법(Medi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1단계로 예측변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2단계는 예측변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매개변인인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매개변인인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변인의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력이,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있는 상태에서 예측변인의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력보다 큰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상관분석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적률상관계수를 구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공차한계가 .49 ~ .60 로 0.1 이상이었고 VIF 값은 1.6 ~ 2.0 으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2 가설 검정 결과

가)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Judd and Kenny[44]가 제시한 3단계 매개분석 방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1단계로 예측변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자율성이 진로준비행

Table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 = 258)

Variables	AT	CP	RL	VEC	TTF	CPB
AT(Autonomy)	-					
CP (Competence)	.57*	-				
RL(Relatedness)	.63*	.56*	-			
VEC(Vocational Exploration & Commitment)	.61*	.58*	.62*	-		
TTF (Tendency to Foreclose)	.47*	.45*	.46*	.67*	-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66*	.63*	.70*	.65*	.46*	-

*p < .05

Table 4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bout Self-Determination(AT, CP, R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CPB) (n = 25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adj. R^2)	p
CPB	AT	.69	.049	.66	14.13*	199.67	.44(.43)	.00
	CP	.47	.04	.63	12.80*	163.82	.39(.39)	.00
	RL	1.50	.10	.70	15.67*	245.53	.50(.49)	.00

* $p < .05$

Table 5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bout Autonomy(AT)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VEC, TTF) (n = 25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adj. R^2)	p
AT	VEC	.500	.041	.61	12.30*	151.37	.37(.37)	.00
	TTF	.42	.05	.47	8.62*	74.33	.23(.22)	.00

* $p < .05$

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F 통계값은 199.67,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66, p = .00$), 자율성은 진로준비행동을 44%($R^2 = .44$)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의 영향을 준다는 H1-1 이 채택되었다. 또한 유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163.82,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63, p = .00$), 유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39%($R^2 = .39$)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H1-2 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245.53,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70, p = .00$)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을

50%($R^2 = .50$)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H1-3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자기결정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1이 검증되었다.

나) 자기결정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1. 자율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자율성이 진로결정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먼저 자율성이 진로탐색몰입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151.37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61, p = .00$)자율성은 진로탐색몰입을 37%($R^2 = .35$)설명할 수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자율성이 진로탐색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2-1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자율성이 진로대안배제경향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은 $F = 74.33$,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47, p = .00$),자율성은 진로대안배제경향을 23%($R^2 = .23$)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H2-2가 검증되었다.

2. 유능감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유능감이 진로결정몰입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먼저 진로탐색몰입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F 통계값은 131.71,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58, p = .00$), 유능감은 진로탐색몰입을 34%($R^2 = .34$)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따라서 H2-3 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유능감이 진로대안배제경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 통계값은 64.66,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5, p = .00$)유능감은 진로대안배제경향을 20%($R^2 = .20$)설명하고 있어 H2-4가 검증되었다.

3. 관계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Table 7과 같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관계성이 진로탐색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F 통계값은 246.32,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70, p = .00$),관계성은 진로탐색몰입을 49%($R^2 = .49$)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H2-5가 검증되었다. 또한 관계성이 진로대안배제경향을 예측하는지 분석한 결과 F 통계값은

Table 6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bout Competence(CP)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VEC, TTF)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adj. R^2)	p
CP	VEC	.35	.03	.58	11.48*	131.71	.34(.34)	.00
	TTF	.29	.04	.45	8.04*	64.66	.20(.20)	.00

* $p < .05$

Table 7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bout Relatedness(RL)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VEC, TTF) (n = 25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F	R^2 (adj. R^2)	p
CP	VEC	.35	.03	.58	11.48*	131.71	.34(.34)	.00
	TTF	.29	.04	.45	8.04*	64.66	.20(.20)	.00

* $p < .05$

67.50, 유의확률은 .00 으로 유의수준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6, p = .00$)관계성은 진로대안배제경향을 21%($R^2 = .21$)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H2-6이 검증되었다.

다)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진로 결정몰입의 관계

Judd and Kenny[44]의 매개분석 단계에 따라 1단계로 예측변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단계는 예측변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매개변인인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매개변인인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변인의 준거변인에 대한 예

측력이,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있는 상태에서 예측변인의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력보다 큰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진로결정 몰입의 매개효과

Table 8과 같이 매개효과 분석결과 단계 1에서 자율성($\beta=.66, t=14.13^*$)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단계 2에서 자율성($\beta=.61, t=12.30^*$)은 진로탐색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beta=.47, t=8.62^*$)이 진로대안배제경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진로탐색몰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66$)이 진로탐색몰입이 추가되었을 때 자율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42$)보다 크므로, 진로탐색몰입은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

Table 8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VEC, TT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A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CPB) (n = 25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rator Variable	Model	β	$t_{값}$	$F_{값}$	R^2 (adj. R^2)
CPB	AT	VEC	step 1 (AT → CPB)	.66	14.13*	199.67	.44(.43)
			step 2 (AT → VEC)	.61	12.30*	151.37	.37(.37)
			step 3 (AT, VEC → CPB)	.42	7.85*	146.64	.48(.48)
		TTF	step 1 (AT → CPB)	.66	14.13*	199.67	.44(.43)
			step 2 (AT → TTF)	.47	8.62*	74.33	.23(.22)
			step 3 (AT, TTF →CPB)	.58	8.88*	110.42	.46(.46)

*p < .05

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66$)이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추가되었을 때 자율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58$)보다 크므로, 진로대안배제경향도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부분매개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이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H3-1, 2가 채택되었다.

2. 유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진로결정 몰입의 매개효과

Table 9가 제시하는 것처럼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계 1에서 유능감($\beta=.63, t=12.80^*$)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계 2에서 유능감($\beta=.58, t=11.48^*$)이 진로탐색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유능감($\beta=.45, t=8.04^*$)은 진로대안배제경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진로탐색몰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능감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63$)이 진로탐색몰입이 추가되었을 때 유능감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37$)보다 크므로, 진로탐색몰입은 유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부분매개하고,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유능감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63$)이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추가되었을 때 유능감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53$)보다 크므로, 진로대안배제경향도 유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이 유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H3-3, 4가 채택되었다.

3.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진로결정 몰입의 매개효과

마지막으로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단계 1에서 관계성($\beta=.70, t=15.67^*$)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계 2에서 관계성($\beta=.70, t=15.70^*$)이 진로탐색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관계성($\beta=.46, t=8.21^*$)이 진로대안배제경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진

Table 9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VEC, TT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e(C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CPB) ($n = 25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rator Variable	Model	β	t 값	F 값	R^2 (adj. R^2)
CPB	CP	VEC	step 1 (CP → CPB)	.63	12.80*	163.82	.39(.39)
			step 2 (CP → VEC)	.58	11.48*	131.71	.34(.34)
			step 3 (CP, VEC → CPB)	.37	6.93*	134.87	.51(.51)
		TTF	step 1 (CP → CPB)	.63	12.80*	163.82	.39(.39)
			step 2 (CP → TTF)	.45	8.04*	64.66	.20(.20)
			step 3 (CP, TTF → CPB)	.53	9.93*	95.66	.43(.43)

*p < .05

로탐색몰입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성의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70$)이 진로탐색몰입이 추가되었을 때 관계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 ($\beta=.48$)보다 크므로, 진로탐색몰입은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부분매개하고 있으며,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70$)이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추가되었을 때 관계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명력($\beta=.62$)보다 크므로 진로대안배제경향의 부분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이로써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이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H3-5, 6. 또한 채택되었다.

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

는데 있어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함으로써 진로준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11과 같이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진로결정몰입의 하위요소인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보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진로준비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진로목표에 애착을 갖고 실행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진로탐색에 있어서도 강요되거나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자율성이 지지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있어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진로결정몰입의 하위

Table 10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VEC, TT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ness(R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CPB) ($n = 25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Moderator Variable	Model	β	$t_{값}$	$F_{값}$	R^2 (adj. R^2)
CPB	RL	VEC	step 1 (RL \rightarrow CPB)	.70	15.67*	245.53	.50(.49)
			step 2 (RL \rightarrow VEC)	.70	15.70*	246.32	.49(.50)
			step 3 (RL, VEC \rightarrow CPB)	.48	9.20*	166.5	.57(.56)
		TTF	step 1 (RL \rightarrow CPB)	.70	15.67*	245.53	.50(.49)
			step 2 (RL \rightarrow TTF)	.46	8.21*	67.50	.21(.21)
			step 3 (RL,TTF \rightarrow CPB)	.62	12.67*	134.67	.51(.51)

*p < .05

Table 11 Hypothesis Testing overall Result

	Hypothesis	Result
H1	Self-Determination → CPB	Adopt
H1-1	AT → CPB	Adopt
H1-2	CP → CPB	Adopt
H1-3	RL → CPB	Adopt
H2	Self-Determination →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dopt
H2-1	AT → VEC	Adopt
H2-2	AT → TTF	Adopt
H2-3	CP → VEC	Adopt
H2-4	CP → TTF	Adopt
H2-5	RL → VEC	Adopt
H2-6	RL → TTF	Adopt
H3	Self-Determination → CPB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artial Mediation
H3-1	AT → CPB (The Mediating Effects of VEC)	Partial Mediation
H3-2	AT → CPB (The Mediating Effects of TTF)	Partial Mediation
H3-3	CP → CPB (The Mediating Effects of VEC)	Partial Mediation
H3-4	CP → CPB (The Mediating Effects of TTF)	Partial Mediation
H3-5	RL → CPB (The Mediating Effects of VEC)	Partial Mediation
H3-6	RL → CPB (The Mediating Effects of TTF)	Partial Mediation

요소인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학생들이 유능감을 많이 자극 받을 수 있는 진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진로결정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경험이 많

거나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인하여 유능감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 현장 및 진로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유능감 발현이 최대화 될 수 있는 교수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진로결정몰입은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직업전문학교가 학점취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다양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관계성 증진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정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성($\beta=.66$), 유능감($\beta=.63$), 관계성($\beta=.70$) 모두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고, 이 중 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업전문학교가 일반 대학과는 다른 학위취득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학우와 교사, 선후배, 교직원 등과의 대인관계가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Cohen and Hoberman[45]은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언급하였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 즉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개인으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46]. 직업전문학교는 학생회나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나 동호회 등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선후배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행사 등도 부족한 상황이나 학생들의 관계성 욕구가 진로준비행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진로지도 및 학교 학습활동 시 적절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대학과 같이 학생각자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과목 특성과 진로 특성, 각 교과목과 다양한 진로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과목이 어떤 과정과 목표 진로에 적합한지 과목의 적정수준과 과목 간 선수관계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나 목표과정에 따라 더 효율적인 교과목 선택이 가능한 학사지도가 필요할 것이다[47].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진로준비행

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증진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에서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이 진로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불안감과 모호함을 줄여 진로에 확신을 갖고 몰입함으로써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다양한 인간적 유대를 형성하게 하는 학습 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진로탐색몰입과 진로대안배제경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진로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입증한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결과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진로지도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향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자기결정성(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진로결정몰입(진로탐색몰입, 진로대안배제경향)에 대한 성별 및 학부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 설문응답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186명(72.1%), 여학생이 72명(27.9%)이었고, 항공정비학부 학생이 133명(51.5%)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들에서 성별과 학부 특성에 따른 결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외에도 진로지도를 하는데 있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나 교과목과 과제의 실재성 등 좀 더 다양한 변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이 자기결정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으나, 진로결정몰입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분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http://www.cb.or.kr/creditbank/eduintro>,
 Nov. 13 , 2018
- [2] Na, J. K., "Relationships Analysis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with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Students - Focused on the Culinary and Baking Science and Art Major,"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 16, No. 6, pp. 239-264, 2013.
- [3] Lee, J. 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Focusing on Vocational Colleges of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Majors of Fashion," Doctoral Thesis. Lifelong Education HRD Track, Baekseok University, 2017.
- [4] Kim, T. H., "Narrative Inquiry about Students' Experience in Labor Training in Commissioned Vocational Education - A Change in Students' Perception of Labor and Careers and Its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Doctoral Thesis, Majored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 [5] Kang, B. D. and Kim, K. N., "Construction of a Counseling System to Improve Teenagers' Problematic Behavior: By Korean-Youth Self Report,"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3, No. 5, pp. 186-196, 2008.
- [6] Kim, B. W. and Kim, K. H.,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31-333, 1997.
- [7] Kim, S. R.,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2004.
- [8] Blau, G, L.,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8, 1988.
- [9]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pp. 119-133, 1979.
- [10] Jordaan, J. P., and Heyde, M. B., *Vocational Maturity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NY: Teachers College Press, 1979.
- [11] Marcia, J. E., *The Relational Roots of Identity*, in J. Kroger(Ed.), *Discussions on Ego Identity*, pp. 101-12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 [12] Blustein, D. L.,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al Processes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32, pp. 345-357, 1988.
- [13] Deci, E. L. and Ryan, R. 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1985.
- [14] Deci, E. L. and Ryan, R. M.,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 11, No. 4, pp. 227-268, 2000.
- [15] Lee, Y. J. and Lee, K. H., "Subtypes

-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2, pp. 267-287, 2010.
- [16] Deci, E. L. and Ryan, R. M., *A Motivation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R. A. Dienstbier(Ed.), *Perspectives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38, 237-288,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1.
- [17] Grolnick, W. S. and Ryan, R. M.,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pp. 550-558, 1987.
- [18] Jeon, S. H., Sihm, M and Yoo, M. 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8, No. 1, pp. 275-296, 2011.
- [19] Baumeister, R. F. and Leary, M. R.,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7, No. 3, pp. 497-529, 1995.
- [20]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pp. 119-133, 1979.
- [21] Super, D. E.,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Row, 1957.
- [22] Blustein, D. L. and Stropher, D. C., “Vocational Hypothesis Testing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1, pp. 45-62, 1987.
- [23] Blustein, D. L., Ellis, M. V. and Devnis, L. 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rocess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pp. 342-378, 1989.
- [24] Kim, B. W.,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al Thesis. Majored in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26] Cho, M. S. and Choi, K. S.,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3, pp. 1085-1099, 2007.
- [27] Lee, J. H.,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3, No. 3, pp. 133-154, 2013.
- [28]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ied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 191-215, 1977.
- [29] Lee, M. S.,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Career Self-Efficacy, Career Barriers Percep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Vocation & Career Counseling, Joenju University, 2003.
- [30] Jang, B. S., Choi, Y, R. and Lee, J. 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aturity of Conscious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s,” *Journal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Vol. 40, No. 1, 2010.
- [31] Guay, F., Ratelle, C. F., Senecal, C., Larose, S., and Deschenes, A.,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pp. 235-251, 2006.
- [32] Flum, H. and Blustein, D. L.

-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pp. 380-404, 2000.
- [33] Lee, J. H, Lee, J. S and Lyu. J. S.,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mily Resilience, Self - De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3, No. 4, pp. 19-34, 2011.
- [34] Han, J. O.,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Efficacy between Self-Determination Level and Career Indetermin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35] Lyu, J. 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Doctoral Thesis.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 Counselling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36] Kim, S, M. and Lee, H. L., “A Structural Analysis of Anticipated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ncie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3, pp. 27-48, 2008.
- [37] Kim. C. D., “A Career Counseling Model Using ‘Flow’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0, No. 1, pp. 5-30, 2002.
- [38] Yang, J. H and Kim, B. W.,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2, pp. 57-71, 2008.
- [39] Lee, T. J., “The Effect of Flow Experienc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Doctoral Thesis, Major in Educational Counselling,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Hongik National University, 2003.
- [40] Kim, E. J.,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1, No.3, pp. 539-555, 2007.
- [41] Choi, S. J.,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Family Variabl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for Science in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 [42] Blustein, D. L., Ellis, M. V. and Devnis, L. E.,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 pp. 342-378, 1989.
- [43] Ko, T. Y.,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2008.
- [44] Judd, C. M. and Kenny, D. A., *Estimating the Effects of Social Interven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45] Cohen, C. S. and Hoberman, H. M.,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1983.
- [46] Park, Y. W. and Ha, K. S., “Influence on

Internal Factors of University on Motiv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Focusing on Regul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3, No. 5, pp. 43-59, 2018.

[47] Park, D. and Go, I. S., “Study on the Fulfillment of Knowledge-Based Educational Mattres Support System,”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pp. 713-721, 1999.

[48] Marcia, J. E., The Relational Roots of Identity. In J. Kroger(Ed.), Discussions on Ego Identity. pp. 101-12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이 수 경 (Lee SooKyoung)

- 정회원
-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문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육학석사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생산 및 경영과학 박사과정
- 중부대학교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서비스 경영, 서비스 품질



김 연 성 (Kim YounSung)

- 정회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서비스 경영, 서비스 품질, 고객 만족, 경영 품질, 가치 창출 전략